

People & Life

35년만에 광주·전남 출신 미스코리아 뽐 이정빈양

“건강한 미소로 새로운 꿈 도전할래요”

“승무원 취업 준비를 하다보니 지난해 메이크업 등을 배우러 다니려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쪽 관계자분에게 처음 제안을 받았어요. 그때는 당황스러워서 안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학교 교수님께서 다시 제안을 하셔서 한번 나가 보자 했어요. 승무원 면접 과정 등에서 자신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큰 무대에 서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좋은 경험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많이 놀랐죠.(웃음)”

지난 6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2012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으로 뽑힌 이정빈(19·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 2년)씨는 “갑자기 참가가 결정되는 바람에 준비 기간이 짧아 메이크업, 스피치, 워킹 등을 급하게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미스코리아 광주·전남진으로 뽑혀 전국대회에 참가한 이씨는 54명의 참가자들과 미를 거쳐 영광을 안았다. 미스코리아 대회에



어, 메이크업 등도 더 열심히 배우고, 춤도 처음 쳐 보는 거라 생소했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죠.”

상 ail하고 출신으로 173cm, 53kg로 동양적인 외모가 돋보이는 이씨는 자신의 강점을 ‘미소’라고 꼽았다.

“승무원이 되려고 공부하다 보니 무엇보다도 웃는 거는 자신이 있었어요(웃음). 그게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웃음과 건강한 미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씨는 갑자기 뛰어들게 된 새로운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다.

“미스코리아나 연예인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2년 동안 미스코리아로 활동하게 되니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 진로를 한번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미스코리아 선배로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이하늬 선배가 둘 모델이예요.”

/김미은기자 mekim@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서 광주·전남 출신이 2등상인 선에 당선된 것은 지난 1977년 정경숙씨가 미스 진에 뽑힌 후 처음이다.

“다른 참가자들은 1~2년 전부터 대회를 준비해서 메이크업 등에 익숙한데 저는 준비 기간이 짧아 학습 기간에도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죠. 혜

화천그룹 서암전통문화 대상에 박종석 화백



있으며 창작과 연구활동을 병행,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박씨에게는 상금 3000만원이 지급되며 재단측은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암문화재단은 금속공작기계 전문 제조업체인 화천그룹 설립자 고(故) 서암 권승관 명예회장(2004년 작고)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기리기 위해 설립, 전통문화 인재양성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광주기상청 기후변화대응 교육 23~25일 조선대 종양도서관

광주기상청(청장 양일규)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25일 까지 조선대 종양도서관에서 호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광주·전남·북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3일까지 이메일(rin@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062-720-0427.

내방

▲정민근(광주시 자치행정국장)씨
▲김관옥(광주시 북구청 경제문화국장)씨 ▲이영배(광주시 북구청 홍보전산과장)씨

수능 준비에 한창인 고3 학생들이 13년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광주 인성고등학교(교장 이표식) 청소년직접식(RCY) 소속 고3 학생 15명은 최근 직접 가꾼 양파와 마늘 240kg을 자매결연기관인 신애원과 소화자매원에 기증했다. 학생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남구 대촌 들녘에서 농작물을 직접 심고 가꿔왔다.

이 학교 진로진학상담 이경기(43) 교사는 우리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승하고 뜻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농작물 가꾸기를 제

“일하는 청소년 스스로 위험 예방할 수 있어야 해요”

실업계고 노동인권 교육 나선 이철갑 조선대병원 교수



“공장에서 실습중인 고등학생이 뇌출혈로 숨졌지만 여전히 실습 학생들은 1주일에 50시간 이상 힘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학생 스스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공장에서 현장 실습하는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해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조선대병원 이철갑(50·광주근로자건강센터장)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를 비롯해 의료진 2명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직원 2명은 9~18일까지 광주지역 11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에서 이 교수 등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유해물질의 위험성 등을 설명한다.

이번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학생들의 근로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돋우기 위해 시행된다.

특히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

2월 발표한 ‘실업계고 학생실습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실습생들의 주간 노동시간과 임금 수준이 기준치에 비해 현격히 떨어졌다. 주간 노동시간은 평균 49.6시간에 달해 법정근로기준시간인 40시간보다 10시간 가량 초과했으며, 학생 3명 가운데 1명꼴로 야간과 휴일에도 일을 하고 있었다.

임금은 평균 124만원에 불과했고, 40% 가량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교수는 “산재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6개월 이내의 미숙련공, 즉 현장실습생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며 “작업에 임하기 전에 철저

한 사전교육과 경각심 등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화학적 유해물질의 위험성, 밭암성 물질, 소음·분진 등 호흡 보호구, 장시간 노동의 폐해 등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강의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현장실습이 수업의 일환인 만큼 노동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교육적인 측면의 실습이 돼야 한다”며 “미래의 일꾼이 될 학생들의 건강을 정부와 사업체가 나서서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증기자 chae@

광주 인성고 13년째 이웃사랑 실천



수능 준비에 한창인 고3 학생들이 13년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광주 인성고등학교(교장 이표식) 청소년직접식(RCY) 소속 고3 학생 15명은 최근 직접 가꾼 양파와 마늘 240kg을 자매결연기관인 신애원과 소화자매원에 기증했다.

학생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남구 대촌 들녘에서 농작물을 직접 심고 가꿔왔다.

이 학교 진로진학상담 이경기(43) 교사는 우리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승하고 뜻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농작물 가꾸기를 제

안했다.

다행히 학생들의 호응이 커고, 주말마다 이 교사와 학생들은 직접 농작물을 길러 최근 수확의 기쁨을 맛봤다.

인성고는 지난 2000년부터 교실, 교무실, 행정실 등에 돼지 저금통을 마련해놓고 모금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렇게 모여진 돈으로 지역 독거노인, 복지시설 등에 꾸준한 기부를 하고 있다.

이경기 교사는 “진로의 출발은 인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현기자 kih8@kwangju.co.kr

기성용 선수

순천정원박람회 홍보대사에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흥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기성용 선수는 “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해준 순천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어린시절 축구 선수로서의 꿈을 키워온 순천을 위해 정원박람회를 알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기성용 선수는 단생복인 드롭니무를 정원박람회에 기증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증기자 ejkim@

주한 네덜란드 대사 순천 방문

기업 정원 유치 등 협의



풀먼크필드 주한 네덜란드 대사와 기업 관계자들이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정원 조성 및 기업 정원 유치 협의를 위해 최근 순천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정원박람회 네덜란드 정원 조성 및 기업 정원 유치를 위해 네덜란드 대사부와 기업 대표 등 6명을 초청해 이뤄진 것이다.

조총훈 순천시장은 정원박람회에 ‘국가의 날’ 참여 등 네덜란드 정부의 관심과 정원조성 및 기업 정원 유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김수공 농협 경제대표 장성서 ‘사랑의 집고치기’



김수공 농협중앙회 경제대표(오른쪽)와 조영조 전남지역본부장이 지난 6일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서 ‘행복나눔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구조단 발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광주 시지부 재난구조단(단장 신승구)은 최근 발대식을 갖고, 회원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소화기 사용법과 긴급 상황 시 필요한 매듭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재난구조단은 앞으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즉각出动해 구조 활동을 벌입고 동시에 수시로 시민들을 상대로 재난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 임청규 소방장 ‘좋은이웃’ 특별상



순천소방서 소속 임청규 소방장(재) 광주방송문화재단 주관으로 최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년도 제9회 좋은이웃 밝은동네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임 소방장은 평소 도민의 안전 확보에 솔선수범하고 19년째 지역의 어려운 학생을 후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kwangju.co.kr

동창·동문회

▲광주충장중학교 총동문회 칭립 총회=13일(금) 오후 7시 상무지구 (주)파인체 호텔 2층 010-3002-0099.

종친회

▲문화류씨 하정공파 광주종친회(회장 류수택) 3분기 모임=10일 (화) 오후 6시 30분 오리명가 062-652-5292.

▲전주리씨 대동중약원 광주 이화회 7월 월례회의(회장 이승봉)=10일(화) 오후 6시 30분 도지원회의실 3층 017-601-2266.

알림

▲승무원 취업 준비를 하다보니 지난해 메이크업 등을 배우러 다니려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쪽 관계자분에게 처음 제안을 받았어요. 그때는 당황스러워서 안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학교 교수님께서 다시 제안을 하셔서 한번 나가 보자 했어요. 승무원 면접 과정 등에서 자신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큰 무대에 서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좋은 경험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많이 놀랐죠.(웃음)”

지난 6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2012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으로 뽑힌 이정빈(19·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 2년)씨는 “갑자기 참가가 결정되는 바람에 준비 기간이 짧아 메이크업, 스피치, 워킹 등을 급하게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미스코리아 광주·전남진으로 뽑혀 전국대회에 참가한 이씨는 54명의 참가자들과 미를 거쳐 영광을 안았다. 미스코리아 대회에

“승무원 취업 준비를 하다보니 지난해 메이크업 등을 배우러 다니려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쪽 관계자분에게 처음 제안을 받았어요. 그때는 당황스러워서 안하겠이라고 했죠. 그런데 학교 교수님께서 다시 제안을 하셔서 한번 나가 보자 했어요. 승무원 면접 과정 등에서 자신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큰 무대에 서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좋은 경험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많이 놀랐죠.(웃음)”

지난 6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2012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으로 뽑힌 이정빈(19·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 2년)씨는 “갑자기 참가가 결정되는 바람에 준비 기간이 짧아 메이크업, 스피치, 워킹 등을 급하게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미스코리아 광주·전남진으로 뽑혀 전국대회에 참가한 이씨는 54명의 참가자들과 미를 거쳐 영광을 안았다. 미스코리아 대회에

“승무원 취업 준비를 하다보니 지난해 메이크업 등을 배우러 다니려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쪽 관계자분에게 처음 제안을 받았어요. 그때는 당황스러워서 안